

2012 9.30 연중 제 26 주일

제 1 독서 : 민수기 11,25-29 < 너는 나를 생각하여 시기하는 것이냐? 차라리 주님의 온 백성이
예언자였으면 좋겠다 >

제 2 독서 : 야고보서 5,1-6 <그대들의 재물은 썩었습니다 >

복 음 : 마르코 9,38-43.45.47-48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네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버려라 >



베이커스필드 성클레멘테성당 : 본당 주임신부 전홍식 요아킴

오늘 제 1 독서와 복음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이 서로 질투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 1 독서를 보면 예언자 명단에 들어 있으면서도 천막으로 나가지 않았던 두사람이 예언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엘닷과 메닷이 진영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저의 주인이신 모세님, 그들을 말리셔야 합니다.” 복음에서도 “어떤 사람이 스승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 내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희를 따르는사람이 아니므로, 저희는 그가 그런일을 못하게 막아 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막지마라, 내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바로 나를 나쁘게 말할수 있는 사람은 없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하고 이르십니다. 오늘 성경말씀을

들으면서 죄에 대해서 묵상을 하여 봅니다. 요즘 드라마를 보면 남녀간의 불륜이나 사기를 치는 행위들을 정당화시키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안에서도 신자로서 도리와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히스패닉 공동체에도 거의 80%가 신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주일 미사에 참여하는 수는 50%에 불과 합니다. 그 이유는 주일미사참례가 중요한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에는 분명히 주일을 거룩히 지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계명을 지키지않으면서도 죄를 느끼지 않습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나쁜짓 을 저지르면서도 그것이 관행인 양 행동하고 ,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한편으로는 남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그러한 사고 방식에 젖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산다면 사람은 절대로 변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십자가는 무거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무거운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벗어버려야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파야 병원에 갑니다. 아픈 고통이 없다면 죽을 병에 걸렸어도 모르고 지내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의 죄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우리가 죄를 저지르면 하느님과 의 관계가 깨어지고 점점더 영혼의 죄가 깊어지면 하느님은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상대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TV 를 보면서 저런 나쁜놈 하다가도 시간이 지나가면 잊어 버립니다. 우리의 죄도 그렇습니다. 내안에 뿌리깊은 죄의 의지가 내눈, 내손, 내 발을 움직입니다. 뿌리를 잘라버려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 만큼 뿌리가 깊기 때문입니다. 힘들기 때문에 매일 매일 노력하여야 합니다. 우리 본당에는 한인공동체를 제외하고도 약 2000 명의 신자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제가 사제이기때문에 저와 대화 할때는 조심을 합니다. 그러나 뒤에서 어떨때는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떨 소리를 듣게 되면 저역시 인간적으로는 예수님의 사도들이 예리고를 지나면서 저주를 퍼붓던 그런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인간적으로는 가서 먹살이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그럴때에 제 자신의 잘못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에 대한 보속으로서 그들을 용서해 주십사고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공동체가 한번 커졌다가 다시 작아졌습니다. 이유는 서로가 용서를 하지 못하게 때문에 커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내가 상처를 입으면 그 상처를 100 배 갚으려하는 본능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느님의 제자로서 그러한 본능은 던져 버려야만 합니다. 때로는 서로 너무 잘알기 때문에 서로 용서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본능에 충실했었다면 저는 이미 9 년전에 이 공동체를 떠났고 아마 신부로서의 삶도 끝냈을 것입니다. 좋은 사람들끼리는 죽기 살기로 친하게 지내다가도, 그것도 오래 가지 않고 말한마디로 원수처럼 지냅니다. 그것은 우정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사랑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진정으로 하느님의 제자가 되고 싶으면 이러한 인간의 나쁜 죄의 본능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죄에 걸려 넘어 질때마다 기도 하십시오. 신앙의 선조들이 하셨듯이 “**예수 마리아!**
예수마리아!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가 오늘 하는 강론은 누구를 지칭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한가위 민족의 명절을 보내면서 오늘도 그냥 집안에서 나오질않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누구를 보고싶지 않고, 미워하고, 그 사람을 보고 내가
결고러워지기가 싫어서 일수도 있습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그런 마음이 들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저의 죄를 생각하면서 그를 용서할때 답답함이 사그러지고, 마음이 가벼워짐을 체험합니다. 오늘
제 2 독서에서는 돈과 명예가 부질없음을 일깨워 주고 계십니다. 왜 돈과 명예가 중요하지 않은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재물과 명예가 썩고 좀먹어 너를 하느님께 고발하는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미사를 봉헌 하면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나에게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지? 내가, 내 이웃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치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나의
이웃에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되살펴 보아야하겠습니다. 하루 24 시간 주님께 나를
봉헌 하며 하루 24 시간을 나를 위해, 나의 이웃을 위해 얼마나 좋은 일을 하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지? 나를 돌아보아야 할것입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모상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